

#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기기 중독을 매개로\*

김경민<sup>1)</sup>

## 요약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의 11차년도 데이터 중에서 초등학교 4학년 58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PSAW 18.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주요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모형의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한 뒤 간접경로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이때의 간접효과 또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부모가 허용적인 양육행동을 줄이는 것은 아동으로 하여금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것을 줄여주며, 이는 학교적응 수준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허용적 양육행동, 미디어기기 중독, 학교적응

## I. 서론

학교적응이란 아동이 학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학교에서의 생활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며, 인식, 참여, 수행과 같은 전반적인 학교생활 영역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개인적 특성 요인과 환경적 특성 요인으로 나뉜다(김원경·권희경, 2019). 많은 학자들이 아동 개인 특성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자아

\* 본 논문은 2021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온라인춘계학술대회(2021.06.05.)에서 포스터 발표한 연구를 수정·보완하였음.

1)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지속가능생활시스템융합교육연구단 연구교수

개념, 자아탄력성 등의 자아관련 요인과 문제행동이나 우울, 불안 등의 정서상태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수행하였다(김분·최연실, 2012; 박성혜·윤종희, 2013; 박영진, 2019; 염정원·조한익, 2016; Bonanno, 2004). 그리고 환경적 요인으로는 크게 학교와 가정으로 나누어 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박영진, 2019; 서혜전·노성향, 2018). 또한 아동의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함께 살펴보기도 하였는데(김현주·홍상황, 2015; 홍애순·조규판, 2014; Chen, Chang, He et al., 2005), 이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의 상호작용에 대한 특성도 파악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중 어느 요인의 영향력이 더 강한지 그리고 서로 보완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환경적 요인들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영향력에 중점을 두어 부모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양육행동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보이는 일반적인 태도나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Becker, 1964), 개인은 생애 초기부터 부모와 상호작용했던 경험을 토대로 이후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 및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Bronfenbrenner, 1979)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은 중요하다. 특히, 아동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 형성에서의 규칙을 만들게 되고, 이렇게 만든 규칙은 아동이 속한 환경에 적응하는 데 기초가 되며 이를 토대로 아동은 발달한다(Beebe & Lachmann, 1994). 이를 미루어보아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Baumrind(1967, 1971)는 양육행동을 애정과 통제의 두 차원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애정은 부모가 자녀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자녀의 독립심을 존중해주며 자녀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양육행동을 말한다. 통제는 부모가 자녀로 하여금 부모가 정한 규칙 및 기대에 따르도록 하고 성숙한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며 자녀의 부적절한 행동은 제한하는 양육행동을 말한다. 이상의 두 차원에 따라 양육행동은 권위적, 권위주의적, 허용적 양육행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존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연구들은 여러 유형의 양육행동의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보거나, 권위적 혹은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의 영향력에 중점을 둔 경우가 많았다(Kochanska, Murray, & Harlan, 2000; Robinson, Mandlco, Olsen et al., 1995).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연구동향을 보이고 있다(김효정·이희선, 2015; 박주연·최영희·황리라 외, 2019; 우애리, 2014).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으로, 권위적 양육행동은 긍정적인 양육행동으로 보고, 이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 양육행동의 대표적인 양상으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애정은 높으나 통제 수준은 낮은 유형인 허용적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는 권위주의적이거나 권위적 양육행동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일부 연구에서 허용적 양육행동을 부정적 양육행동의 하위요인으로 보기도 하나, 이제는 허용적 양육행동도 세분화된 양육행동의 하나로 분리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교육 및 개입 방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부모들의 양육 특성을 보면,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의 비율이 높았던 과거에 비해 애정과 정서적 지지의 수준이 지나쳐 자녀를 과보호하거나 한계설정이나 통제 없이 모든 행동을 허용해버리는 양육행동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이용화·김지현·임소연 외, 2014). 즉, 자녀를 과잉보호하여 자녀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지나친 애정을 보이거나 자녀와 분리되지 못하는 양육행동이 나타나는 것이다. 허용 수준이 높고, 통제의 기준이 없거나 비일관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에게 있어 다양한 적응상의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김효정·이희선, 2015; 우애리, 2014). 허용적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은 자녀의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휘둘리기도 한다. 따뜻한 부모로 자녀에게 높은 수준의 애정을 보이지만 자녀의 발달과 행동의 방향성이나 규칙 혹은 행동양식의 구조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다(Baumrind, 1967). 허용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동은 규칙 준수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적절한 행동에 대해 모호한 기준을 가지게 되며 통제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충동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기쁘다, 2020; 김은향, 2020; Alizadeh, Talib, Abdullah et al., 2011). 또한 아동의 미디어 사용과 부모의 양육행동의 관련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허용적 부모들은 아동의 미디어 사용에 있어 제한을 하기도 하고 함께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하였다(Eastin, Greenberg, & Hofschire, 2006).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본 여러 연구들은 부모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할수록 아동이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주·홍상환, 2015; Stright, Gallagher, & Kelley, 2008). 그리고 부모가 자녀와 함께 규칙을 만들고, 아동에게 일관적인 규칙을 적용하며 아동의 행동에 있어 일정한 규범을 정하여 한계를 설정해 주는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고, 과보호하거나 허용적인 양육행동을 줄이는 것은 학교 생활에서의 규칙적인 생활과 또래와의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희, 2020). 또한 애정 수준이 높고 통제 수준이 낮은 허용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통제력 발달 저해 측면에서 부정적인 양육행동으로 분류되기도 하였다(김재희, 2020). 하지만 아직까지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

구들은 권위적 양육행동으로 대표되는 긍정적 양육행동이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으로 대표되는 부정적 양육행동의 영향력에 집중되어 있어(김원경·권희경, 2019), 허용적 양육행동의 영향력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스마트미디어 기기의 활용이 보편화된 요즘 시대에 부모들은 아동양육에 대한 어려움으로 스마트폰을 쉽게 허용하며 이는 부모자녀관계 뿐만 아니라 아동의 적응적 측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이지영·이주연, 2020). 이러한 시기에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부모와 아동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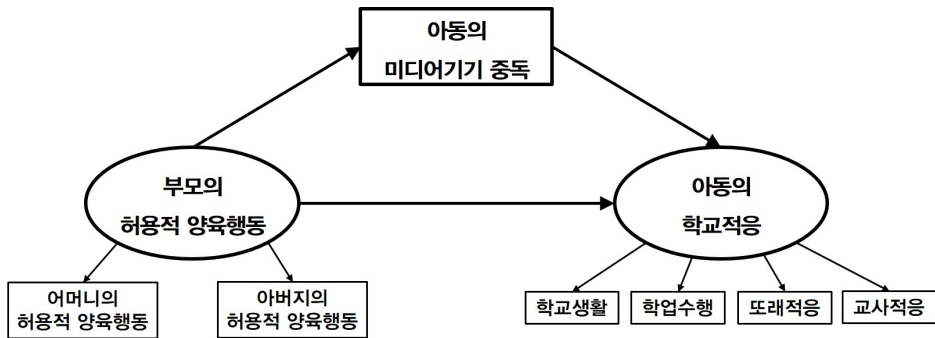
다음으로,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개인적 요인들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발달의 영향력에 중점을 두어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자아탄력성(박상희, 2009), 자기조절능력(임선아, 2013), 자기효능감(정재은·신나나, 2019) 등과 같은 다양한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 외에도 현 시대에는 미디어의 영향을 받는 개인적 특성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컴퓨터와 스마트폰과 같은 미디어 사용 연령층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으며,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한국정보화진흥원, 2019)와 함께 이로 인한 역기능적 문제가 사회적으로 두드러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미디어기기 중독을 개인적 특성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COVID-19의 장기화로 인해 온라인 수업은 계속되고 있는 반면, 아동들은 올바른 미디어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상태로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어 미디어기기 중독과 같은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미디어기기 중독이란 미디어기기에 의존하여 점점 미디어기기 이용시간이 많아지며,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불안해하거나 초조함을 느끼는 등 개인의 전반적 활동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김형지·김정환·정세훈, 2012). 아동은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데, 미디어기기에 중독된 아동의 경우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학교에서 미디어기기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선행 연구들은 이에 주목하여 미디어기기 중독이 학교적응의 여러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아동의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담임교사, 또래, 학업 및 전반적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이경숙·조복희, 2007),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은 초등학생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영진, 2019; 엄윤섭·최은실, 2018). 이처럼 미디어기기 중독은 학교적응의 어려움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임에는 확실하나, 많은 연구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박영진, 2019; 엄윤섭·최은실, 2018) 청소년(김태량·최용민, 2016; 서인균·이연실, 2016)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하지만 COVID-19로 인해 온라인상에서의 활동 시간이 증가함과 동시에 스마트폰 보급 연령이 낮아지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 학교적응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은 미디어기기 중독의 예방 및 교육 파원에서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일부 선행 연구들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함께 살펴보는 것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본 연구에도 적용시켜본다면,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역시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과 함께 간접적인 영향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해주거나 애정을 많이 표현할수록, 부모가 거부하거나 과보호하는 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중독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백소진·오홍석, 2017; 유숙경·김진숙·박영진, 2018; 조한익, 2011). 또한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통제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미디어기기 중독으로 이어지고(이지영·이주연, 2020; 이현정·김세경·천성문, 2016), 미디어기기에 중독된 아동은 온라인상에서의 활동에만 익숙하여 대면활동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등 학교생활에 있어 다양한 적응 문제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김형연·김민주, 2020; 이경님, 2021). 이상의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함께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인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과 개인적 요인인 미디어기기 중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는 그동안 권위적 혹은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에 집중되어 있던 부모의 세부적인 양육행동 양상 중 허용적 양육행동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및 학교적응 간의 매커니즘을 밝혀 아동의 미디어기기중독 수준을 낮추는 부모교육을 통해 학교적응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그림 1] 참고)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 연구문제 1.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 학교적응은 관련이 있는가?
- 연구문제 2.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1.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2.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통해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의 11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11차년도 자료는 2018년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점차 미디어기기에 익숙해져감과 동시에 미디어 의존율이 점차 증가하는 시기로 밝혀졌으며(김은설, 2020), 이들의 미디어중독에는 부모의 영향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난 점을 볼 때(김종민·최은아, 2019), 본 연구의 주제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150명의 표본 중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학교적응 모두에 응답한 58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들 중 남학생이 309명(52.8%), 여학생이 276명(47.2%)이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여 아동의 77.6%(454명)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동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은 1일 평균 1.47시간( $SD= .93$ )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44.91세( $SD=3.63$ ),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47.30세( $SD=3.81$ )이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교 졸업(아버지 39%, 어머니 35%)인 경우가 많았다.

## 2. 측정도구

### 가.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은 Robinson, Mandleco, Olsen, 외(1995)의 양육행동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 및 수정한 척도 중 허용적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을 사용하였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직접 보고하였다. 본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일관성 부족 6문항, 방관 4문항, 확신부족 5문항으로 구성되며, 예시문항으로는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못 본 척한다.” 등이 있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스스로 자신이 허용적 양육행동을 많이 한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요인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를 산출한 결과, 어머니의 허용적 양육행동은 .65, 아버지의 허용적 양육행동은 .66이었다.

### 나. 미디어기기 중독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관찰자용 ‘K-척도(인터넷중독진단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어머니가 보고하였다. 본 척도는 총 13문항이며, 예시문항으로는 “식사나 휴식 없이 화장실도 가지 않고 PC, 스마트폰을 한다.”, “PC,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건드리면 화내거나 짜증을 낸다.” 등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지각하기에 아동이 각각의 미디어기기 중독 하위요인의 특성을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를 산출한 결과 .88로 나타났다.

### 다. 학교적응

아동의 학교적응은 지성애와 정대현(2006)이 개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아동의 학급 담임교사가 보고하였다. 본 척도는 총 35문항으로 학교생활적응(11문항), 학업수행적응(11문항), 또래적응(8문항), 교사적응(5문항)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며, 각 요인의 문항을 살펴보면 학교생활적응은 “학교에서 질서를 잘 지킨다.”, 학업수행적응은 “과제를

잘해으며 준비물을 잘 챙겨온다.”, 또래적응은 “친구를 잘 도와준다.”, 교사적응은 “선생님과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야기 한다.” 등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가 지각하기에 아동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요인별 Cronbach's  $\alpha$ 를 산출한 결과, 학교생활적응 .95, 학업수행적응 .95, 또래적응 .94, 교사적응 .82, 전체 .97로 나타났다.

### 3. 자료분석

먼저, 주요 변인들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고, 측정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본 연구의 연구모형의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인 Goodness-of-Fit-Index (GFI)와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상대적합지수인 Tucker-LewisIndex(TLI), Comparative Fit Index(CFI), Normed Fit Index(NFI)를 참고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간접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상의 자료분석에는 PSAW 18.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 학교적응의 관계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허용적 양육행동의 평균은 2.36( $SD=.34$ ), 아버지의 허용적 양육행동의 평균은 2.45( $SD=.36$ )으로 나타나,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의 점수는 중간값보다 약간 낮았다.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의 평균은 1.65( $SD=.40$ )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척도의 중간값보다 약간 낮았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학교적응의 경우, 학교생활적응의 평균은 4.28( $SD=.83$ ), 학업수행적응은 4.03( $SD=.83$ ), 또래적응은 4.09( $SD=.79$ )와 교사적응은 4.09( $SD=.70$ )로 나타나 척도의 중간값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연구변인들의 왜도는  $-1.41 \sim .54$ , 첨도는  $-.29 \sim 1.85$ 로 나타나, 왜도의 절대값이 3 이하, 첨도의 절대값이 10 이하라는 정규성 가정의 기준(Kline,



2015)을 충족하였다.

이어서,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 학교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 참고). 첫째,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허용적 양육행동은 학교적응 중 학교생활적응( $r=-.10, p<.05$ )과 학업수행적응( $r=-.09, p<.05$ )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아버지의 허용적 양육행동은 학교생활적응( $r=-.09, p<.05$ )과 교사와의 적응( $r=-.09, p<.05$ )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교적응 중 또래와의 적응 요인은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허용적인 양육행동을 적게 보일수록 아동은 대체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업수행을 잘 하는 등 학교적응 수준이 높았다. 둘째,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미디어기기중독과 학교적응 중 학교생활적응( $r=-.20, p<.001$ )과 학업수행적응( $r=-.14, p<.01$ )과 유의한 부적관계가 나타나, 미디어기기에 중독된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 연구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N=585)

	1	2	3	4	5	6	7
1	1.00	.38***	.39***	-.10*	-.09*	-.06	-.05
2		1.00	.25***	-.09*	-.05	-.03	-.09*
3			1.00	-.20***	-.14**	-.09	-.06
4				1.00	.67***	.70***	.43***
5					1.00	.80***	.68***
6						1.00	.60***
평균	2.36	2.45	1.65	4.28	4.03	4.09	4.09
표준편차	.34	.36	.40	.83	.83	.79	.70
왜도	-.09	-.33	.54	-1.41	-1.06	-1.14	-.82
첨도	.35	-.02	-.29	1.48	.97	1.85	.72

주: 1=어머니의 허용적 양육태도, 2=아버지의 허용적 양육태도, 3=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4=학교적응:학교생활 적응, 5=학교적응:학업수행 적응, 6=학교적응:또래와 적응, 7=학교적응:교사와 적응

\* $p < .05$ , \*\* $p < .01$ , \*\*\* $p < .001$ .

## 2.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가. 측정모형 분석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교적응을 측정하는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잘 설명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수 추정에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 [MLM])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적합도 지수는  $\chi^2=23.16$  ( $p<.001$ ,  $df=7$ ), NFI=.99, TLI=.98, CFI=.99, RMSEA=.06으로 나타났다. 이 때,  $\chi^2$ 값의 경우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여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함께 고려한 결과, NFI, TLI, CFI가 .90 이상이고(홍세희, 2000), RMSEA가 .08 이하로 나타나(Browne & Cudeck, 1993) 적합도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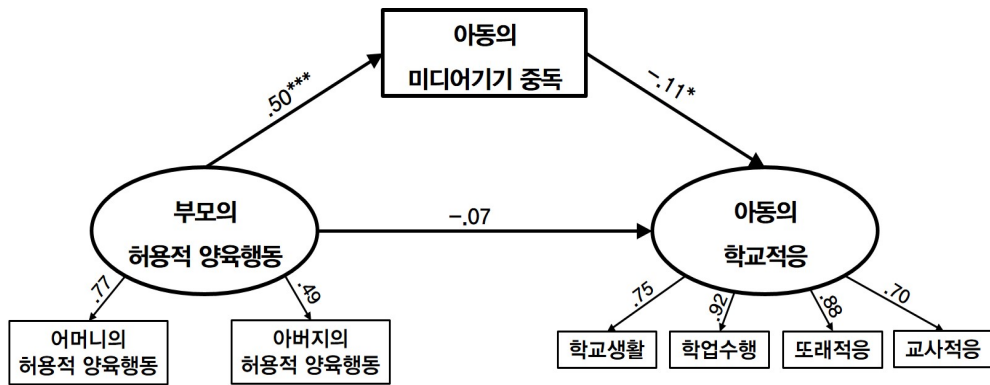
### 나. 구조모형 분석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적합도 지수는  $\chi^2=77.84$ ( $p<.001$ ,  $df=12$ ), NFI=.95, TLI=.93, CFI=.96, RMSEA=.09로 나타나,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그림 2] 참고).

〈표 2〉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경로 계수

		(N=585)			
경로		B	$\beta$	SE	C.R.
부모의 허용적 양육태도	→ 아동의 학교적응	-.19	-.07	.19	-.97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 아동의 학교적응	-.21	-.11	.10	-.20*
부모의 허용적 양육태도	→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79	.50	.13	6.27***

\* $p < .05$ , \*\*\* $p < .001$ .



[그림 2]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매개로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형

먼저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경로와 관련하여,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어 간접경로의 경우,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beta=.50, p<.001$ ) 유의한 정적 영향을,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은 학교적응에( $\beta=-.11, p<.05$ )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통해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이 낮을수록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은 낮았으며, 이는 높은 학교적응으로 연결되었다.

이어서,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이용하였다(〈표 3〉 참고). 그 결과,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통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 $\beta=-.06, p<.05$ )는 유의하였다. 내생변인이 외생변인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인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SMC])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은 학교적응의 2.4%를 설명하였고,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25.3%를 설명하였다.

〈표 3〉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간접효과, 직접효과와 전체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래핑 결과

경로	Bootstrapping			SMC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부모의 허용적 양육태도 → 아동의 학교적응	-.07	-.06*	-.12	.02
아동의 미디어 기기 중독 → 아동의 학교적응	-.11		-.11	
부모의 허용적 양육태도 → 아동의 미디어 기기 중독	.50		.50	.25

\* $p < .05$ .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및 학교적응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비롯하여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교적응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허용적 양육행동은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 적응과 관련이 있었고, 아버지의 허용적 양육행동은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이 있었다. 즉, 부모가 허용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아동은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낮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 있다(김원경·권희경, 2019).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이 부정적 양육행동 중 권위적 양육행동에 중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부정적 양육행동 중에서도 과잉 보호, 일관성 부족, 양육 방식에 대한 확신 부족, 방관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허용적 양육태도의 문제점을 밝혀주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명확한 기준 없이 비일관적으로 아동을 받아들이는 허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으로 하여금 처음 접하게 되는 사회생활인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가 허용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아동이 미디어기기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미디어기기 사용에 대한 올바른 기준이나 교육 없이 미디어기기를 접하게 되는 아이들은 통제력의 상실로 미디어기기에 중독되기 쉽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이경남, 2021; 이경숙·

조복희, 2007)와도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역시 아동의 학교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중 학교생활, 학업수행 및 또래와의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디어기기에 중독된 아동의 경우 학교생활 전반에 무능감을 경험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부정적 정서를 많이 표출하며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보이고 내재적 혹은 외현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신윤희, 2010)는 기존 연구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미디어기기에 중독된 아동의 경우 일상생활보다는 가상세계에서 자신의 가치감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다면 이러한 기제는 중독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되고, 이러한 경험의 누적은 점차적으로 학교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둘째,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부모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할수록 자녀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들(김두규·강문숙, 2017; 김현주·홍상향, 2015)과는 상이한 결과로, 부모의 양육행동이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심리적 안녕감,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능력 등과 같은 아동 개인 특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송희원·최성열, 2012; 임선아, 2013)과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교적응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고려해볼 때,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보다는, 본 연구에서 설계한 구조모형 안에서 고려된 아동의 개인적 특성인 미디어기기 중독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이전 시기에 비해 줄어드는 아동기의 특성상, 아동이 학교에 적응함에 있어 부모의 양육행동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부모의 양육행동의 영향을 받은 아동 개인의 특성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셋째,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통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경로와 관련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이 허용적일수록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은 높았으며, 이는 곧 낮은 수준의 학교적응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허용과 방임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인터넷 중독을 높여 결과적으로 학교적응을 어렵게 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며(장영애·박주은, 2011),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으로 하여금 통제능력을 발달시켜 이를 통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김재희, 2015)와도 유사한 맥락에 있다. 즉 부모가 일관성이 부족한 양육행동을 하거나, 본인의 양육행동에 확신이 없거나 방황하는 등 허용적으로 자녀를 양육할수록 아동은 미디어기기에 중독되기 쉽고, 이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각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미

디어기기 중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부모가 애정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초등학생이 스마트폰 중독(백소진·오홍석, 2017; 유숙경·김진숙·박영진, 2018)이나 인터넷 중독(조한익, 2011)을 덜 보인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들과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즉, 수용적이고 민주적이며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와 위안을 얻어 이로 인한 심리적 만족감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미디어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적어지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반면 미디어기기 사용에 있어 자녀를 훈육할 때 부모가 확신과 일관성이 없거나 방관하는 양육행동을 보인다면 자녀는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을 기르기보다는 부모의 눈치를 보거나 비일관적인 기준에 맞추려는 그릇된 행동을 습득하여 미디어기기에 쉽게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연구들에서는 미디어기기 중독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서, 아동의 미디어 사용에 대한 부모의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김형지·김정환·정세훈, 2012; Chang, Chiu, Chen et al., 2019), 부모의 영향이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이 선행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미디어기기와 관련된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이슈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미디어기기 관련 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적절한 양육행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 중재 이론(Clark, 2011)에서는 부모의 노력이 미디어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부모가 아동과 미디어 이용이나 콘텐츠에 대한 내용에 대해 대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부모가 미디어를 중재하는 방식은 부모의 양육행동과도 관련있으며, 특히 허용적 양육행동의 경우 아동에게 미디어기기 사용에 있어 자기조절에 대한 롤 모델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도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다(Warren & Aloia, 2019). 이를 미루어볼 때, 허용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부모들에게 허용적 양육행동의 위험성을 알려주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나아가 경각심과 함께 올바른 양육행동이 아동의 미디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함께 제시하여 올바른 미디어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은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중독(김희영·전미순·함미영, 2005; 이경숙·조복희, 2007)이나 스마트폰 중독(박미화·김미정, 2015; 변희숙·권순용, 2014; 최진오, 2014), 휴대전화 의존(김형연·김민주, 2020; 양난미·이지연, 2007; 장관영·조미현, 2008)이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은 다양한 사회정서 발달 및 신체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결과적으로 아동의 학교

적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미루어볼 때,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미디어기기 중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즉, 미디어기기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지도나 교육을 통해 미디어기기 과의존이나 중독을 예방하는 것이 아동의 학교적응을 도울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기기 중독에서 미디어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지 못했다. 하지만 미디어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미디어기기 중독이나 몰입의 영향력에 차이가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고려한다면(Linebarger, Barr, Lapierre et al., 2014), 추후연구에서는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과 함께 내용적인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의 경우 부모가 스스로 보고한 자료를 사용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부모가 생각하는 본인의 행동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동의 인지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이 인지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부모의 양육행동 중 허용적 양육행동만을 살펴보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양육행동을 함께 살펴본다면 각각의 양육행동의 영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환경적 요인으로서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과 COVID-19로 인해 사회적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아동의 개인적 요인인 미디어기기 중독에 중점을 두어,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 학교적응 간의 매커니즘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다양한 양육행동 중 허용적 양육행동에 중점을 두어, 기존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바라보던 양육행동에 대한 시각을 세분화시켰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다.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은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의 영향을 받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이상의 본 연구는 아동의 학교적응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올바른 미디어기기 활용법이나 부모상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으로 하여금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같은 미디어기기에 더욱 몰두하게 하고, 이는 학교생활에서의 수행 및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COVID-19로 인해 미디어기기 사용 시간이 늘어난 요즘 아동에게 있어 미디어기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학교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도 관련있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아동의 학교적응을 위해서는 부모교육과 함께 올바른 미디어기기 활용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더욱이 허용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부모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사회에서는 허용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부모들의 특성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취업모의 경우 양육 부담, 양육 스트레스, 일-가정 양립 등 다양한 스트레스 유발 요인들이 영향을 주어 아동에게 무조건적 허용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기쁘다, 2020). 따라서 허용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부모들의 특성을 파악한 후, 각 대상들의 특성 맞춤형 지원책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연구들에서는 미디어기기 중독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서, 아동의 미디어 사용에 대한 부모의 영향 특히 바람직한 양육행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김형지·김정환·정세훈, 2012; Chang, Chiu, Chen et al., 2019). 미디어기기 중독과 관련한 문제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일관적이고 적절한 한계를 설정해주는 등의 양육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교육과 같은 중재적 노력이 매우 필요한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허용적 양육행동 수준이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부모 모두가 허용적일 경우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위험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어머니와 아버지 둘 다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 보다 효과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부모교육을 단순 권장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미디어기기 활용에 대한 부모교육 자료를 무료로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제안들을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미디어기기 활용에 대한 부모교육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콘텐츠 제작 등이 있다.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공모전 혹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올바른 미디어 콘텐츠 활용에 대한 부모교육 자료를 미디어로 만들어 배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것이며, 현 시대에 올바른 미디어기기 교육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자료로도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미디어기기 중독에 대한 예방과 감소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즉, 미디어기기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지도나 교육을 통한 미디어기기 중독에 대한 예방이 아동의 학교적응을 도울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부모교육이 시행되어야함과 동시에 학교차원에서도 아동들에게 바람직한 미디어기기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COVID-19의 장기화로 온라인 수업이 연장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학교차원에서 모든 아동들에게 미디어기기 의존 및 중독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미디어기기의 적절한 이용 시간 및 이용 목적에 대해 알려주고 이에 대한 통제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기쁘다(2020). 취업모의 우울과 일-양육 갈등이 아동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 12(4), 177-197.
- 김두규·강문숙(2017).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력 매개효과. *수산해양교육연구*, 29(2), 365-379.
- 김분·최연실(2012). 초등학생의 부모, 교사, 또래 애착과 유형별 자아개념 및 학교생활적응. *대한가정학회지*, 50(1), 1-13.
- 김원경·권희경(2019). 한국 아동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심리, 사회환경, 어머니 양육행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2(4), 1-19.
- 김은설(2020).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 사이버비행 감수성, 조기 대처가 답. *육아정책 Brief*, 83,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향(2020).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아동 스마트미디어기기 의존, 집행기능 곤란, 화용언어능력의 구조적 관계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7), 1037-1059.
- 김재희(2015). 부·모의 의도적 통제 및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의도적 통제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재희(2020). 어머니의 한계설정과 과보호/허용 양육이 유아의 외현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우울과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의한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6(3), 99-117.
- 김종민·최은아(2019).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미디어 이용시간과 어머니의 양육

- 행동이 미디어중독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8(4), 197-225.
- 김태량·최용민(2016).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정신건강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32(3), 185-210.
- 김현주·홍상환(2015).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초등교육*, 26(1), 413-429.
- 김형연·김민주(2020).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미디어 기기 중독 및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1(1), 105-121.
- 김형지·김정환·정세훈(2012). 스마트폰 중독의 예측 요인과 이용 행동에 관한 연구. *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보*, 29(4), 55-93.
- 김효정·이희선(2015). 어머니 양육행동 및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간의 관계. *한국보육학회지*, 15(4), 113-134.
- 김희영·전미순·함미영(2005). 초등학생의 인터넷중독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2(4), 441-456.
- 박미화·김미정(2015). 또래 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발달지원연구*, 4(1), 1-19.
- 박상희(2009).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실패내성, 학교적응 관계 연구. *초등교육학연구*, 16(2), 59-81.
- 박성혜·윤종희(2013). 초중등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개인적 변인과 가정 환경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4(3), 147-169.
- 박영진(2019). 개인, 가족, 사회변인이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설명력. *아동교육*, 28(1), 39-57.
- 박주연·최영희·황리라·박남심(2019). 어머니의 우울과 유아의 사회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22(1), 1-19.
- 백소진·오홍석(201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의 관계: 대인 불안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5), 31-54.
- 변희숙·권순용(2014). 초등학생의 외로움과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23(4), 303-317.
- 서인균·이연실(2016). 청소년기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8(3), 217-241.
- 서해전·노성향(2018). 아동의 자아존중감, 주관적행복감, 학교적응의 구조적 관계분석. *열린 부모교육연구*, 10(4), 55-70.
- 송희원·최성열(2012). 빈곤 여부,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학업동기, 심리적 안녕감과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6(3), 651-672.

- 신윤희(2010). 학교부적응아동과 ADHD아동, 일반아동의 언어적 특성 비교: K-WISC-III, 실행기능검사, 문장완성도 검사를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26(2), 223-239.
- 양난미·이지연(2007). 아동, 청소년 상담: 남, 여 초등학생의 부모 애착, 컴퓨터게임 중독과 학교적응간의 관계 모형 분석. 상담학연구, 8(2), 639-655.
- 엄윤섭·최은실(2018).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적응의 매개효과와 자기통제력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2), 297-307.
- 염정원·조한익(2016). 청소년의 외현화, 내재화 문제행동과 학교생활적응의 중단적 인과관계 분석. 교육심리연구, 30(1), 195-223.
- 우애리(2014).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숙경·김진숙·박영진(2018). 부모양육태도, 정신건강, 학교생활적응이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7(2), 145-161.
- 이경님(2021). 아동의 자아존중감, 미디어기기 중독과 학교적응 및 행복감 간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3), 925-949.
- 이경숙·조복희(2007). 초등학교 3·4학년 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0(2), 47-57.
- 이용화·김지현·임소연·채명옥·이혜림·오진아(2014). 헬리콥터 양육에 대한 진화론적 개념분석. 한국아동간호학회지, 20(4), 237-246.
- 이지영·이주연(2020).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의사소통이 미디어 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아동복지연구, 18(2), 101-118.
- 이현정·김세경·천성문(2016). 부모자녀관계 변인과 청소년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련성에 대한 메타분석. 재활심리연구, 23(2), 329-348.
- 임선아(2013).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생의 자기조절능력과 자존감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 초등교육연구, 26(1), 121-138.
- 장관영·조미현(2008). 초등학생의 컴퓨터 게임 중독: 중독 실태와 자기통제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정보교육학회논문지, 12(4), 459-467.
- 장영애·박주은(2011). 부모-자녀관계 특성과 인터넷 사용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0(4), 319-331.
- 정재은·신나나(2019). 학령 후기 아동의 실행기능과 학교적응: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0(4), 123-135.
- 조한익(2011).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인터넷 이용동기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3(4), 269-287.

- 지성애·정대현(2006). 초등학교 일학년용 학교적응 척도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7(1), 1-15.
- 최진오(2014). 초등학생의 스마트폰중독과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서 실행기능 결합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23(4), 391-410.
- 한국정보화진흥원(2019). 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 홍애순·조규판(2014).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적응이 학교행복감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1), 45-68.
-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lizadeh, S., Talib, M. B. A., Abdullah, R., & Mansor, M. (2011).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yle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sian social science*, 7(12), 195-200.
- Baumrind, D. (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1), 43-88.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4(1), 1-103.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 & L. W. Hoffman(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pp. 169-208).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Beebe, B., & Lachmann, F. M. (1994). Representation and internalization in infancy: Three principles of salience. *Psychoanalytic psychology*, 11(2), 127-165.
- Bonanno, G. A. (2004). Loss, trauma, and human resilience: Have we understand the human capacity to thrive after extremely aversive event? *American Psychologist*, 59, 20-28.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Chang, F. C., Chiu, C. H., Chen, P. H., Chiang, J. T., Miao, N. F., Chuang, H. Y., & Liu, S. (2019). Children's use of mobile devices, smartphone addiction and parental mediation in Taiwa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93, 25-32.
- Chen, X., Chang, L., He, Y., & Liu, H. (2005). The peer group as a context: Moderating

- effects on relations between maternal parenting and social and school adjustment in Chinese children. *Child Development*, 76(2), 417-434.
- Clark, L. S. (2011). Parental mediation theory for the digital age. *Communication theory*, 21(4), 323-343.
- Eastin, M. S., Greenberg, B. S., & Hofschire, L. (2006). Parenting the internet. *Journal of Communication*, 56, 486-504.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4th ed.). New York: Guilford Press.
- Kochanska, G., Murray, K. T., & Harlan, E. T. (2000). Effortful control in early childhood: continuity and change, antecedents, and implications for soci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6(2), 220-232.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 Linebarger, D. L., Barr, R., Lapierre, M. A., & Piotrowski, J. T. (2014). Associations between parenting, media use, cumulative risk, and children's executive functioning.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Behavioral Pediatrics*, 35(6), 367-377.
- Robinson, C. C., Mandleco, B., Olsen, S. F., & Hart, C. H. (1995). Authoritative, authoritarian, and permissive parenting practices: Development of a new measure. *Psychological Reports*, 77(3), 819-830.
- Stright, A. D., Gallagher, K. C., & Kelley, K. (2008). Infant temperament moderates relations between maternal parenting in early childhood and children's adjustment in first grade. *Child Development*, 79(1), 186-200.
- Warren, R., & Aloia, L. (2019) Parenting style, parental stress, and mediation of children's media use. *Western Journal of Communication*, 83(4), 483-500.

- 논문접수 8월 3일 / 수정본 접수 9월 2일 / 게재 승인 9월 13일
- 교신저자: 김경민,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지속가능생활시스템융합교육연구단 연구교수,  
rudals0414@korea.ac.kr

## Abstract

# The Effects of Permissive Parental Behavior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e Mediating Effect of Children's Media Device Addiction

Kim, Kyungmin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media device addi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missive parental behavior and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e study sample constituted 585 fourth-graders in elementary school who had participated in the eleventh wave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Pearson's correlation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with PSAW 18.0 and AMOS 21.0. The result showed that permissive parental behavior had an indirect effect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rough their media device addiction. In other words, when parents showed lower levels of permissive parenting behavior, children tended to have lower levels of media device addiction, which, in turn, led to better adjustment in school. These results add to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mechanism linking permissive parental behavior to children's school adjustment, and especially emphasize the role of media device addiction i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Keywords: permissive parental behavior, media device addiction, school adjustment